

낙농업계의 회고



전서울우유 협동조합
전무 유 남 렬

올해는 모든 면에서 다사다난하였던 한해로 역사에 기록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국가전반에 걸쳐서도 그러했거니와 우리 낙농업계도 매우 어렵고 변화가 많은 한해였다고 회고된다.

지난 84년 비수기부터 시작된 우유수급불균형문제가 올해들어와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급기야는 원유생산조절이라는 정부의 시안이 농민의 거센 거부반응으로 나타나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낙농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으며 아마도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처음 있는 대규모 농민봉기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초의 잉여분유재고도 사상 최고수준인 12,000톤을 넘어섰고 설상가상으로 올해 상반기의 우유생산량은 젖소의 도입이 없는 여건에서도 전례없이 높은 21%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하여 유업계는 엄청난 재고부담과 덤핑판매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낙농가들도 유대지연, 잉여분유분담, 신규농가의 납유곤란등으로 낙농산업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몸살을 앓았던 해라고 볼 수 있다. 상반기에

유례없이 높은 원유생산량을 시현한 것은 85년5월 원유가인상이후 송아지생산과 젖소판매에만 관심을 가지던 낙농경영 형태가 착유위주의 낙농경영체계로 점차 정상화되어감에따라 전반적으로 낙농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또한 86년도의 사료작물작황이 매우 좋아서 86/87월동용 저장사료의 급여가 충분하였고 동계간의 기후가 좋았던 점이 원유생산증가의 큰 원인이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원유생산증가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제품판매성장도 예상보다 상회함으로서 원유수급과 재고소진에 도움을 주게되었다. 대체로 급년 여름의 기후가 가뭄과 폭우의 연속으로서 낙농가들이 조사료급여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것이 원유생산위축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원유생산 주기가 감소추세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므로서 그와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와같은 생산위축이 생산농가의 소득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지만 아무튼 낙농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지난 3월의 상황과 비교할때 매우 호전되었으며 또 오는 87/88비수기의 수급상황이 86/87비수기 때 보다는 좋으리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공업계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또한 낙농가들은 다소 안정된 낙농생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현상은 결코 장기적인 안정추세로는 볼 수 없으며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상황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급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장치의 마련을 위한 노력은 계속 경주되어야할 것이다. 혹자는 원유의 수급이란 항상 변동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문제를 그리 심

각하게 보지않는 경향이 있고 또 수급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는 듯하면 즉시 피로웠던 고충을 망각하고 역작용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낙농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매우 좋지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년들어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국의 낙농가수가 매우 급격히 감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바와같이 1981년 이후 전개된 농림수산부의 복합영농계획에 따라 많은 신규낙농가가 80년대 전반에 증가되었다. 1980년말 전국의 낙농가수는 22,122호였으나 1985년 6월에는 45,791호로 2.1배나 늘어났다. 이때 증가된 신규낙농가들은 거의가 도입된 젖소를 1~2두씩 분양받은 젊은 영농후계자로서 매우 영세한 낙농경영을 시작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변동은 81년 12월에 전국낙농가중 10두미만의 소규모 목장이 65.4%였던 것이 85년 6월까지 73.6%로 증가된 통계수치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낙농가수가 점차 감소되어 지난 2년간 9.6%에 해당하는 4,401호가 감소되었고 금년들어 다시 2,000여호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낙농가수의 감소추세는 지난 80년도의 낙농불황이후 일시 감소되었던 상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우기 감소된 농가는 모두 10두미만의 소규모 농가로서 85년6월에 10두미만의 낙농가가 73.6%, 10~19두가 18.8%, 20~29두가 4.6% 그리고 3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3.6%였던 것이 87년6월에는 각각 61.9%, 25.2%, 7.9% 그리고 5.0%로 변화되어 소규모 낙농가의 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농경영이 적정규모로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으며 낙농이란 것이 소규모 복합영농체제로는 걸맞는 농업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험은 이웃 일본의 낙농이 지난 1970년대에 겪어온 것과 같은 양상으로 볼 수 있다. 1965년도 일본의 낙농가수는 381,600호로 호당사육두수가 3.4두에 불과하였고 1970년에도 307,600호에 5.9두의 규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6년뒤인 1976년

도에 낙농가수는 147,100호로 반감되었고 규모는 12.3두로 늘어났으며 그뒤 다시 6년뒤인 1982년에는 낙농가수는 98,900호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규모는 21.3두로 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낙농 규모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85년에는 농가수 82,000호에 규모는 25.6두로 늘어났다. 이와같은 낙농구조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될수 없을 것이며 향후 규모화 추세는 더욱 본격화 되리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그러한 변화속에서 규모의 적정화, 생산성의 꾸준한 신장등으로 총 원유생산량은 오히려 증가되어왔다는 점이다. 일본은 1960년도에 194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던것이 1985년도에는 744만톤으로 3.8배나 늘어났으며 우리나라도 86년말에 비하여 올해 낙농가수는 2,000호나 감소되었으나 총 원유생산량은 오히려 예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가공업계에서 일어난 올해의 특기할일로는 무엇보다도 치즈열풍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치즈산업은 작년한해 소비량이 655톤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들어 두배이상의 급격한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치즈수입을 둘러싼 낙농가와 수입추진업체와의 암투가 계속되어온 상황속에서도 3~4개 업체가 치즈생산합작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국산 슬라이스 치즈의 날개포장(INDIVISUAL WRAPING) 방식을 도입함과 아울러 맛의 개선을 통한 시장확장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또 피자치즈의 개발과 소매판촉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생활 구조개선에 기여하면서 국산치즈에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어놓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낙농사의 일대 전환기적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원유수급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국내유업체들이 유제품 개발과 기술향상등이 부족하여 우수소비증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질책을 소비자, 낙농가, 행정당국, 학계모두로부터 받아왔으나 금년에는 유업체가 이점에 관련한 괄목할만한 일을 성취하였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우리나라 치즈시장의 규모는 작년에 약2,600톤정도로 추정하고있고, 이중 2,000톤정도가 암시장에서 외제가 유출되어나온 것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의 위와같은 유가공업계의 노

력이 암시장거래량을 상당히 빼앗아온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높이 평가할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가격 면에서도 지난81년 이후 자연치즈의 가공용대체가 격을 동결시켜와서 암시장의 가격보다 25%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맛과 질 그리고 포장의 세련미에 있어서도 외제암거래치즈를 압도하고있어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치즈생산설비투자도 매우 활발하고 대규모공장건설이 금년에 기공됨으로써 명실공히 올해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치즈시대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여름이후 우유의 소비도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유질개선은 우리나라 낙농문제의 가장 심각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인데 지난 2년간 개선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올해와서 보냉탱크차의 투입율이 크게 향상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본다. 우리나라의 보냉탱크집유차량은 1985년에 129대, 1986년에 178대였는데, 금년에는 무려 78대나 증차되어 9월현재 256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보냉차에의한 집유비율도 지난 85년도의 16.3%에서 51.3%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보냉탱크차로 집유된 원유의 세균수는 일반 무개집유차가 수집한 원유보다 3~4분의1로 나타났고, 특히 여름철에는 7~8분의 1로 적게 나타나 이러한 유질개선노력도 올해 유업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유의 위생적인 면은 선진국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 문제는 행정당국, 유업체, 낙농가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일이며 모처럼 국산치즈가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좋은 기회를 유지발전시키거나, 좋은 유질로 가공비용과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를 증대시킨다거나 하는 개연성을 차치하고라도 소비자를 위한 낙농산업의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제품의 소비성향에대한 또한가지 주목할만한 올해의 변화는 버터품귀현상을 빼놓을 수 없다. 작년도 유업체의 버터과잉재고로 제과·제빵업체에 덩핑판매된 버터가 마가린시장을 상당히 대체시킴으로서 금년도에는 버터가격이 환원된 뒤에도 소비

자의 버터 성향을 다시 마가린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버터시장저변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야 어쨌든 버터의 소비가 신장되고 시장이 확대되고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유의 강력한 경쟁품목으로 인식되고있는 두유는 금년들어 전체 우유판매물량의 10%미만으로 묶여있음을볼때 우유의 소비는 계속신장되리라 믿어지는 것이다.

이상과같은 낙농생산부분과 유가공부분의 지난 1년간 여건변동을 종합해보건데 향후 단기적으로는 낙농산업의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생산기반과 그 구조의 정비가 효율적이고 고생산성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낙농경영이 규모의 경제화라는 긍정적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또 유질개선노력도 미흡하나마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낙농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원유의 수급은 생산의 지속적증가와 소비의 한계성이라는 숙명적 불균형문제로 남아있고 집유형태는 부조리와 비능률, 비합리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원유의 거래교섭과 검사등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낙농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여건을 감안하여 낙농가, 유업체, 행정당국이 모두 혼연일체가되어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낙농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낙농업계 모두가 진력해야할 과제는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이다. 현재의 상황은 정부는 유업체에, 유업체는 정부와 낙농가에게, 낙농가는 정부와 유업체에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모두의 공동 노력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7월 낙농가들의 대정부결의문속에 낙농가들도 유대의 일부를 우유공동홍보비로 부담하겠으니 유업체와 정부도 참여해달라는 내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낙농가의 이러한 제의는 매우 고무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유업체도 정부당국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